



제목	Three Mystics Walk into a Taver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Hamilton Books
발행일	2015. 2. 11.
저자	James C. Harrington Sidney G. Hall III
출판도시	Lanham
페이지수	166
ISBN 또는 ISSN	978-0761865421

### 내용 요약

이 책에서 말하는 ‘세 명의 신비주의자’는 페르시아 수피 시인 루미와 독일의 로마 가톨릭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 그리고 스페인의 랍피 모시스 드 레온이다. 중세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이 세 사람이 베니스에 있는 선술집에서 만나 소위 말하는 심야토론을 벌이는데, 토론의 목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여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위대한 스승들은 각자 상상의 날개를 최대한 펼친다.

이 세 사람은 비록 출신 국가가 다르고 정치·경제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걷는 영적인 길이 신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에 닿아 있고, 그 순례의 길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특히 세 명의 신비주의자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한 적도, 서로 조율한 바도 없지만 중세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대와 시공을 초월한 신비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상상에 의한 이들의 만남이 주선되고 성사된다.

독자들 또한 이 세 사람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왜냐하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들의 대화나 강의, 논문 등의 내용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화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상황에 맞아떨어지고,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과거형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 대화의 현실감과 생동감이 그대로 살아있다. ‘선술집’에서 만나 상상의 대화를 나누는 이 세 명의 신비주의자들 주변으로 독자들이 몰려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